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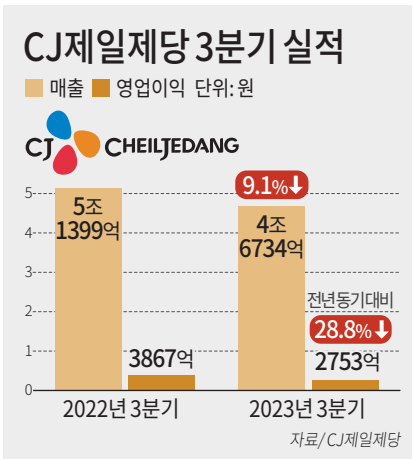
CJ제일제당, 햇반·비비고 앞세워 가공식품 판매량 ‘회복’

3분기 매출 4.6조 영업이익 2753억
경영효율화로 영업이익 감소폭 축소
“차별화 제품으로 영업 강화 예정”

CJ제일제당이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경영 효율화를 통해 영업이익 감소폭을 줄였다.

CJ제일제당은 공시를 통해 올해 3분기 매출 4조6734억원, 영업이익은 2753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5조1399억원) 대비 9.1%,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3867억원) 대비 28.8% 감소한 성적이다. 대한통운을 포함한 3분기 연결기준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은 7조4434억원, 영업이익은 3960억원을 기록했다. 각각 전년 동기대비 7.1%, 18.2% 하락한 수치다.

식품사업부문은 3조5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21%, 14.9% 감소했으나 3분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 2093억원과 비교해 약 12% 늘어난 2341억원을 기록했다. 햇반과 비비고 등 핵심제품을 앞세워 외식 소비 문화에 따라 늘어나는 내식 수요를 공략해 국내 가공식품 판매량이 늘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판매·관



리비를 효율화한 것이 주효했다.

해외 식품 사업도 글로벌 전략제품(GSP, 만두·치킨·P-라이스·K-소스·김치·김·롤)을 앞세워 확장을 이어갔다. 핵심 권역인 북미에서는 만두가 그로스리 경로 점유율 50%를 넘어서며 1등 지위를 한층 공고히 했고, 지난 분기 처음으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슈완스의 대표 피자 브랜드 ‘레드바론’도 2위 브랜드와 격차를 벌렸다.

신규 시장인 유럽과 오세아니아에서도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영국 메인스트림 채널인 오카도(Ocado)에 비비고 냉동밥, K-소스 등을, 아스다(ASDA)에 김스낵을 출시하는 한편, 호주에서는 현지 최대 대형마트인 울워스

(Woolworths) 전 매장에서 비비고 만두를 판매하는 등 K-푸드 영도확장을 가속화했다.

사료첨가제를 주력으로 하는 바이오사업부문은 매출 8987억원, 영업이익 10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기저효과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고수의 제품인 트립토판을 비롯해 발린, 알지닌 등 스페셜티 아미노산은 30%대의 높은 매출 성장을 유지했다. 조미소재·건강기능식품·미래식품 소재 등이 주력인 FNT사업부문은 1595억원의 매출과 369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사료·축산 독립법인 CJ 피드앤드케어는 6092억원의 매출과 5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사업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사료·축산 수요 부진에 따른 평가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것으로 사측은 분석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미국 만두, 피자 등 1등 제품 지위 강화 및 유럽·오세아니아 등 신규 지역 메인스트림 진입을 가속화하고, 국내에서도 차별화 제품을 앞세워营业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바이오사업부문은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품목 판매를 지속 확대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애경, 비건제품으로 건강·환경 모두 챙겨

알피스트 모이스춰 바디워시·로션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이 피부 건강과 환경을 위한 클린 뷰티를 실천하고 있다.

애경산업은 비건 브랜드 ‘알피스트’에서 ‘비건 모이스춰 바디워시·로션’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알피스트 비건 모이스춰 바디워시·로션’은 에텔바이스·알파인웜우드 추출물 등 8가지 허브 성분과 알로에베라잎·바오밥나무씨 추출물 등 7가지 자연 유래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색소, 파라벤, 실리콘 오일 등은 함유하지 않아 민감한 피부에도



애경산업이 ‘알피스트 비건 모이스춰 바디워시·로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애경산업

자극을 주지 않는다.

이번 신제품은 피부의 보습 장벽을 강화하는 세라마이드 성분을 피부에 전달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알피스트는 ‘마이크로 캡슐 세라마이드’ 기술을 활용했다.

또 제조 과정에서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비건 처방’을 적용해 한국비건인증원의 비건 인증을 획득했다. 제품 용기도 플라스틱 잔여물을 재활용해 만든 재생 원료 소재다.

한편 선호하는 향에 따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애경산업 관계자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스위스 향료사의 고급 향료를 사용했다”며 “부드럽고 은은한 향의 ‘베이비파우더’, 흰 꽃 향의 ‘퓨어 릴리’ 등 2종으로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역량 강화 ‘앞장’

GC녹십자의료재단

자궁경부암 검진 운영 등 韓 경험 공유

GC녹십자의료재단이 개발도상국의 보건의료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지난 10월 30일부터 5일 동안 ‘우즈베키스탄 자궁경부암 인유두종바이러스선별검사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의 단기 고위급 초청 연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자궁경부암 인유두종 바이러스 선별검사 역량강화 컨설팅사업’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개발도상국 보건의료개발 국제협력사업이다.

이를 통해 GC녹십자의료재단은 자궁경부암의 조기 진단 및 예방과 관련한 검진사업, 연구, 정책수립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안디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현지 파트너기관은 바이러스전문병원이다.

GC녹십자의료재단은 지난 2021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추진하며 국제 협력 활동을 확대해 왔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 감염병 대응 전문가 초청연수’ 사업을 위탁 운영한 바 있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개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등성 입증

셀트리온이 임상을 통해 ‘졸레어’에 대한 바이오 시밀러 후보물질의 치료적 동등성을 입증하고 있다. ‘졸레어’는 미국 제넨테크와 스위스 노바티스가 개발한 알러지성 천식,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다.

셀트리온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알레르기 천식 면역 학회’에서 졸레어의 바이오시밀러인 ‘CT-P39’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1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폴란드, 불가리아 등 6개국에서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 619명을 대상으로 첫 투약 후 40주 동안 임상을 진행했다.

셀트리온은 환자를 CT-P39 투여군과 졸레어 투여군으로 나누고 각각에서 300mg, 150mg 용량별 투약을 했다. 특히 300mg 투여군에서 베이스라인 대비 12주 차에서 ‘주간 간지럼 점수 값’의 변화를 1차 평가지표로 측정했다. 측정 결과 CT-P39는 동등성 기준을 충족했다. 아울러 2차 평가지표인 안전성, 면역원성 평가 등에서도 오리지널 의약품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셀트리온은 지난 4월과 6월 유럽과 국내에서 각각 CT-P39의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이청하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오아시스마켓, 3분기 영업이익 1047% 급등

매출액 1212억… 전년比 11% 증가

오아시스마켓이 올해 3분기 흑자폭을 확대했다. 상생커머스 오아시스마켓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47% 신장한 58억3200만원을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체 분기 기준 최대 영업이익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21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오아시스마켓 측은 “제휴사업을 통한 영역 확대가 규모의 경제로 이어지며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다”며 “특히 온라인 부문의 성장률은 지속해서 좋은 기록을 내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아시스마켓은 경영 효율화 과정 속에서도 오히려 현장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비중만은 대폭 확대했다.

/신원선 기자

쿠광트래블, 국내 인기 숙박상품 파격 할인

쿠광의 여행 전문관 ‘쿠광트래블’이 국내여행 활성화를 돕기 위해 국내 인기 숙박상품을 오는 27일까지 파격적으로 할인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국내 숙박 WOW 할인 프로모션’은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은 증가하고 국내여행이 줄어드는 추세에서 국내 숙박업계를 돕기 위해 쿠광트래블이 마련한 행사다.

쿠광트래블이 엄선한 60여 국내 숙박 상품(펜션/호텔/리조트)으로 구성

됐으며, 크리스마스 연휴 및 연말연시 객실이 포함되어 있다.

숙소 종류는 조식 1인 포함 3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객실부터 부대시설 이용권이 포함된 리조트 패키지까지 다양하다. 숙박시설별로 객실 업그레이드, 조식·사우나 무료 제공, 바비큐 이용료 50% 할인, 부대시설 할인 등 풍성한 부가 혜택을 마련해 고객들이 만족스러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페르노리카, 논 스카치 위스키 시장 확장

페르노리카코리아가 아일랜드 위스키 고유의 독특한 증류 방식 ‘싱글 팟 스틸 위스키’인 ‘레드브레스트 15년’을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논-스카치 위스키 시장 확장에 나선다.

‘레드브레스트’는 아이리시 위스키가 세계를 호령하던 1800년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위스키 제조 방식인 ‘싱글 팟 스틸’을 고수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로 위스키 애호가 및 평론가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싱글 팟 스틸 위스키’는 발아하지 않은 생보리와 몰트(발아 보리)를 혼합해 구리로 만든 단식 증류기에서 만들어지는 아일랜드 위스키 고유의 독특한 증류 방식을 적용, 총 3회의 증류 과정을 거쳐 특유의 부드러움과 복합적 풍미를 자랑한다.



레드브레스트 15년

/신원선 기자